

CPSC와 미국 내 규제기관들 카드뭴 사용 강력 단속

카드뭴 기준 마련을 위한 새로운 표준도 검토 중

소비자 제품에서 카드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전역의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향후 카드뭴 금지 법안의 실시와 더불어 발암물질 리스트인 '제안 65호'를 통해 카드뭴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할 방침이다. 표준제정기관인 미국재료시험학회(ASTM)도 어린이 장신구에 카드뭴을 포함한 기타 중금속 사용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 <편집자>



소비자 제품의 카드뭴 사용에 대해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몇몇 주정부 기관들은 어린이용 장신구의 카드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5월 3일 일리노이 주는 2011년 7월 1일부터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뭴이 함유된 어린이 장신구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카드뭴안전법'을 통과시켰다. 5월 11일 코네티컷 주도 이에 합세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등도 비슷한 법안 마련을 고려 중이다. 연방입법기관은 카드뭴을 금지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어린이 장신구에 사용할 것을 금지했다.

5월 10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높은 수치의 카드뮴이 함유된 1만9,000개의 팔찌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카드뮴 함량으로 어린이용 장신구가 리콜된 것은 2010년에만 세 번째다. CPSC의 대변인은 “향후 더 많은 양의 리콜을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CPSC, 제안 65호를 통해 카드뮴에 대한 경고 예상

1980년에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카드뮴을 유독폐기물로 지정했으며, 현재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돼있다. 1987년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제안 65호 리스트에 카드뮴을 추가했으며, 1997년에는 생식 독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 분류됐다. 또한 카드뮴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리스트에서 7번째 순위에 올랐다.

금지법안과 더불어 CPSC는 제안 65호를 통해 카드뮴에 대한 경고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고 강화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작업자의 카드뮴 노출에 대해 단속을 높임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카드뮴 기준 마련을 위한 새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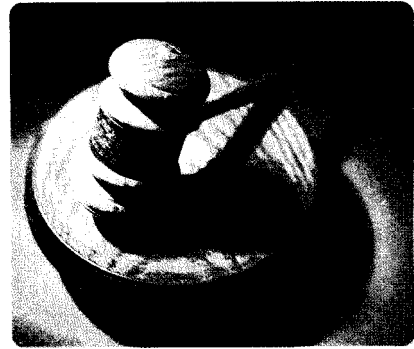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조만간 카드뮴 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이 표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제정기관인 미국재료시험학회(ASTM)도 어린이 장신구에 카드뮴을 포함한 기타 중금속 사용 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맥도널드 음료수 잔의 페인트로 그린 만화 캐릭터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리콜을 실시한 이후, 의회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장인 Henry Waxman은 맥도널드와 음료수 잔을 제조한 Arc Intl North America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CPSC측에 유아용 제품의 카드뮴 기준 마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CPSC 대변인인 Scott Wolfson은 “CPSC는 유아용 제품의 카드뮴 사용을 경고하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현재 기준을 위한 표준(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은 향후 마련될 기준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표준제정기관인 ASTM은 유아용 장신구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카드뮴과 기타 중금속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카드뮴이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로부터 카드뮴을 차단하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정부가 유해물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원하고 있다.



▲ 미국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어린이제품에의 카드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카드뮴 사용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검토 중에 있다.